

# 〈잘 산다〉는 것의 意味

—소크라테스의 對話篇을 中心으로—

崔 明 官\*

## I

얼마 전에 자식의 일로 고생하는 어떤 모친과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그 말 중에 “저 아이가 정신만 차리면 우리도 남들 못지 않게 잘 살 텐데, 자가용 차도 두고...”라는 푸념이 무엇인가 내 마음에 파문을 던졌다.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저 모친처럼 세상 사람은 물질적으로 넉넉하면, 혹은 사치스러우면, 잘 산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잘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다이몬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사실,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잘 산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 생각되고 있는 성싶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다 할 수 있을까? 이것은 하여간에, 〈잘 산다〉는 것은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좋은 옷을 입고 사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의 욕구의 대상인 듯싶다.

그런데 플라톤의 『크리톤』에 〈잘 산다〉는 말과 거기 대한 일종의 해석이 있다. 그리고 플라톤은 〈잘 산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나아가 생각할 때에 플라톤의著作 중 특히 소크라테스의 對話篇은 〈잘 사는 것〉의 탐구라고 볼 수도 있고, 〈잘 산〉 사람으로서의 소크라테스의 人間像의 浮刻이라고 볼 수도 있을 성싶었다. 그래서 여기에 〈잘 산다〉는 것의 소크라테스의 意味를 다시 吟味하고 오늘날의 우리에게 있어서 〈잘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며 또 그런 것이 가능한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한 것이다.

\* 哲學科 教授

## II

『크리톤』의 對話 중에 소크라테스가 “.....우리는 그저 사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길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한다.....”<sup>①</sup>라고 말하는 귀결이 있다. 이어 “<잘>이란 <아름답게>라든가 <올바르게>라든가와 같다”<sup>②</sup>라는 말이 나온다. 즉 <잘 산다> εὖ ζῆν의 <잘> εὖ를 <아름답게> καλῶς 그리고 <올바르게> δικαίως 로 규정하고 있다. καλῶς 는 흔히 <아름답게>라고 새기지만, 본래 <잘>, <올바르게>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잘> εὖ 이란 결국 <올바르게> δικαίως 요, <잘 산다>는 것은 <올바르게 사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겠다. 그리고 δικαίως 의 名詞는 δικαιοσύνη 즉 <옳음>내지 <正義>이므로 <올바르게 산다>는 것은 正義를 따라 혹은 正義에 立脚하여 사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正義가 무엇이나 하는 것은 『國家』에서 길게 또 심각하게 논의된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깊이 들어가지 않기로 한다.

하여간 <잘 산다>는 것은 『크리톤』에서 <옳게 산다>는 것으로 금방 規定되어 있다. 따라서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옳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옮겨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옳음>의 內包의 分析이라 할 수 있다.

『크리톤』에서는 脫走하라는 권고에 대하여 소크라테스가 여러가지로 변론하고 있다. 이 著作은 흔히 <惡法도 法이다. 그러니까 惡法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소크라테스에게 돌리는 誤解의 源泉(?)이 되어 온 것이다. 물론 『크리톤』에는 惡法도 法이니까 따라야 한다는 소리는 없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 가장 귀한 것은 德과 正義와 秩序와 國法이라”<sup>③</sup>는 생각이 비쳐지고는 있다. 法은 原則的으로 악한 것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소크라테스를 처형하게 한 法도 그 나름으로 나라에 유익하게 될 것을 기약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우리 나라의 法律도 그 文句만을 따져보면 나무랄 데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국 인간이 악한 것이다. 인간들에게 德과 正義가 없고, 인간들이 秩序와 國法을 따르지 않아 社會에 惡이 가득한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영혼(ψυχή. ‘영혼’이란 譯語는 舊式일는지 모르겠다. ‘정신’이라 하는 것이 좋을는지 모르겠다)이 “<옳음>(혹은 正義)과 <옳지 않음>(혹은 不正)에 관계하는 것”<sup>④</sup>이라 말하며, 또 “옳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상하고 옳으므로 말미암아 더욱 나은 것이 되는 것”<sup>⑤</sup>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또 영혼은 신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넘지시 말하고 있다.<sup>⑥</sup> 그러므로 이 영혼을 不正에 의하여 상하게 해서는 안된다.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不正을 당하면,

註 ① Platon, *Kriton*, 48 b.

② Ibid.

③ Ibid. 53c.

④ Ibid. 47e.

⑤ Ibid.

⑥ Ibid.

대중은 그 보복으로 不正을 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不正을 행해서는 안되니까 不正을 不正으로 갚아서는 안된다”<sup>⑦</sup> 라고 말하고 있다.

요컨대, 『크리톤』에 있어서 <잘 산다>는 것은 <옳게 산다>는 것이요, 옳게 산다는 것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不正을 행하지 않으므로써 영혼을 毀傷시키지 않으면서 사는 것이라 하겠다. B.C. 5세기에 있어서 國法과 個人的 對決은 오늘날보다 훨씬 fair 했던 듯싶다. 소크라테스가 國法을 假想人物로 하여 말하게 하고 있는 말 가운데에는, 아테나이의 나라 안에서 養育・教育받은 것이 合意에 의한 것이요, 國外로 나가서 살고 싶으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나가서 살아도 좋다는 것이 事實에 의하여 허락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sup>⑧</sup> 여기의 분위기는 샤르뜨르에게서 보는 바와 같은 私生兒的 意識에 지배되고 있는 現代人의 상황보다 훨씬 자유로워 보인다. 우리는 사실 참된 自由를 많이 빼앗기고 있다. 하여간 소크라테스는 國法을 어김으로써 자기의 영혼이 상할 것을 염려하여 脫走보다 죽음을 택한 것이다.

### III

죽음에 대하여 소크라테스는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좋은 것 중 가장 큰 것인지도 모른다”<sup>⑨</sup>고 말하고 있다. 사람들은 죽음이 가장 큰 災殃인 양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가 없으면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sup>⑩</sup>이다. 죽음은 『파이돈』의 主題이어서 뒤에 다시 言及하겠지만 우선 여기서는, <잘 산다>는 것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辯明」에 있어서의 <잘 산다>는 것의 첫째 意味라 하겠다. 그렇다고 공연히 목숨을 버리자는 것은 아니다. 소크라테스는 無意味하게 죽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처신한 모양이다. 그는 國事に 關係하기에는 “너무 착해서 목숨을 보전할 수 없으리라”<sup>⑪</sup>생각하고, 자기 자신이나 모든 사람에게 최대의 이익을 줄 수 있는 일을 하려 했다.<sup>⑫</sup> 그는 또 자기가 國政에 關係하는데 대해서 다이몬이 반대했다고도 말하고 있다.<sup>⑬</sup>“……오오 아테나이 사람들이여, 만일 제가 일찌기 나라 일에 關係하려 했다면 이미 저는 망하고, 여러분이나 저 자신을 위하여 아무 좋은 일도 못했을……것입니다. ……많은 사람에 대하여, 그저 곧게 반대하고 不正과 違法이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어디까지나 막으려는 사람으로써 목숨을 보전하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正義를 위하여 참으로 싸우려는 자는, 잠시나마 목숨을 보전하려 할진대,

註 ⑦ Ibid. 49b.

⑧ Ibid. 51c~e.

⑨ *Apologia Sokratous*, 29a.

⑩ Ibid.

⑪ Ibid. 36b.

⑫ Ibid. 36c 參照.

⑬ Ibid. 31d.

私人으로써 행동해야지, 公人으로써 행동해서는 안됩니다”<sup>14</sup>라고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이 말은, 플라톤이 그의 이른바 『第7書簡』에서 소크라테스의 處刑과 그것을 둘러싼 政治現實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늘날 모든 나라는 나쁘게 정치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sup>15</sup>라고 한 것에 對應하는 것이다. 이러한 말들 속에 담긴 빠져린 政治不信의 사상은 소크라테스의 사상이기보다 오히려 플라톤 자신의 心情의 吐露인지 모른다. 오늘날 우리 나라에는 「不正과 違法을 어디까지나 막으려 하는 사람으로써 목숨을 보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政治現實이 本質적으로 없는지 반성해볼 만 하다.

그런데 政治에 대한 不信이라고 하는 否定的 態度를 뒤집어 보면 자기의 使命에 대한 熱意라고 하는 肯定的·積極의 態度가 드러난다. 그리고 <잘 산다>는 것은 <使命感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시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使命感을 가지고 자기의 使命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生活의 敎訓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소크라테스는 한가지 條件——“지금까지 해온 바와 같은 探求나 哲學(愛知)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sup>16</sup>는 條件으로 無罪釋放되는 것을 거절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이 매우 혹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데 대한 깨달음 혹은 自負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인간에게 있어서는, 德과 이 밖에 제가 거기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 자신과 남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들에 관해서 매일 이야기하는 것이 최대의 선이요, 검토함이 없는 생활은 인간다운 생활이 아니라……”<sup>17</sup>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德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 最大의 善이라고 까지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는 것이 다름아닌 愛知 즉 哲學하며 사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결코 이 愛知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있다. 그는 말한다——“숨을 쉬는 한, 또 힘이 미치는 한, 지혜를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누구를 만나든 제 생각을 말하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sup>18</sup> 하여간 <잘 산다>는 것은 보람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지, 공연히 목숨만 연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 자신에게 있어서는 검토하면서 사는 생활이 인간다운 생활이었다. 여기서 ‘검토’라 하는 말은 ‘吟味’라고도 ‘反省’이라고 옮겨도 좋을 것이요, 흔히 델포이의 神託이라고 하는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말도 검토·반성있는 생활을 요구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여러가지 옳지 못한 生活態度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까 하는 데에만 머리를 쓰고 또 평판이나 지위에 대해서

註 14 Ibid. 31d~32a.

15 *Epistolai*, 326a.

16 *Apologia Sokratous*, 29c.

17 Ibid. 38a.

18 Ibid. 29d.

마음을 쓰고, 思慮나 진리에 대해서, 또 정신을 가장 훌륭하게 하는 데에는 생각도 않고 염려도 하지 않으니 부끄럽지 않은가? ⑩…… 제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은, 오직 여러분들 중 젊은이에게나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나, 될수록 정신을 훌륭하게 할 것을 마음쓰고, ⑪그보다 먼저 혹은 그와 같은 정도로, 신체나 돈에 관해서 마음을 써서는 안된다는 것을 설득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여기 관해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돈으로부터 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덕에 의하여 돈이나 그 밖의 모든 것이, 개인적으로나 公的으로나 인간을 위하여 좋은 것이 된다.’ ⑫……” 그러므로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옳게 사는 것> 즉 <잘 사는 것>은 돈이나 육체에 관해서 정신보다도 더 마음을 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될수록 정신(ψυχή)을 훌륭하게 할 것을 마음쓰면서 사는 것이다. 또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고 세상의 평판이나 지위에 대해서가 아니라, 思慮나 진리에 대하여, 그리고 정신을 가장 훌륭하게 하는 데 마음을 쓰면서 사는 것이다. 여기서 思慮는 原典에 φρόνησις 로 되어 있다. <생각이 깊은 것>, <조심성 있는 것>, <신중한 행동>을 의미하는 말이다. 알지 못하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지혜가 없으면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 나아가서는,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혹은 죽음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도 모르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이 모든 것은 思慮있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보아 올 때, 『소크라테스의 辯明』에 있어서 <잘 산다>는 것은 돈이나 신체나 세상의 평판이나 지위에 머리를 쓰지 않고, 무엇보다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기의 영혼 즉 정신을 가장 좋은 것, 가장 훌륭한 것이 되게 하려고 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辯明』은 소크라테스의 말 그대로는 아닐는지 모른다. 따라서 위에 말한 바와 같은 思想은 플라톤의 理想主義의 表現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것에 관련된 考證의 문제를 다루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소크라테스 자신의 말이건, 플라톤의 思想으로 물든 것이건, 하여간 돈이나 신체를 소중히 여길 것이 아니라 정신을 훌륭하게 하는 것을 염려해야 된다고 하는 사상은 인류 역사상 하나의 뿌리깊은 사상의 전통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우리의 現實이 이러한 사상에서 거리가 먼 것임도 또한 불행하게도 명백한 사실이다. 黃金萬能의 風潮는 資本主義 탓인가, 人間本性的의 癡疾인가? 돈이면 모든 것이 문제없이 해결된다는 社會가 나쁜가, 한 시간도 물질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인가? 소크라테스의 時代와 社會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社會보다 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고도 생각이 든다. 資本主義 社會에서는 資本家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돈만 많으면 잘 사는 줄 알고 있다. 돈 가지고 身體的 安樂과 快樂을 누릴 수 있다. 快樂主義者는

註 ⑩ Ibid. 29d~e.

⑫ Ibid. 30b.

快樂을 누리면서 살기만 하면 <잘 사는> 것일 터이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으로 보는 것이 常識이다. 소크라테스는 이 常識에 반대하고 있다. 우리가 참으로 알고 있지 않다고 한다. 愛知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참으로 알고 愛知하는 데 대한 보람은 무엇인가? 여기 대해서는 『파이돈』 속에서 解答을 찾아볼 수 있다.

#### IV

소크라테스에게는 죽음에 대하여 또 이른바 來世에 대하여 일종의 宗教的 信念 내지 希望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다. 『파이돈』 속에서 플라톤은 그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게 하고 있다——“.....오오 심미아스와 케베스, 만일 내가 현명하고 선한 神들에게로 지금 가는 것이라는 信念이 없다면,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저 세상 사람들에게로 간다는 信念이 없다면, 죽음을 당하여 내가 슬퍼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겠지. 그러나 내가 좋은 사람들한테로 간다는 것은, 꼭 확실하다고는 할 수 없을지 모르나, 나는 그렇게 바라고 있네. 그리고 내가 아주 좋은 主人인 神들에게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없이 굳은 確信을 가지고 있네.”<sup>㉑</sup> 이리하여 『파이돈』은 영혼의 不死에 대한 論證을 전개하고 있다. 그 論證을 다 듣고도 現代人에게는 懷疑가 남을는지 모른다. 그건 하여간에, 그 論證 도중에 우리는 『크리톤』이나 『소크라테스의 辯明』에서 주장된 바와 같은 <잘 사는> 태도가 確認되고 補充說明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파이돈』에서는 특히 哲學者의 바람직한 生活態度가 문제되고 있다. 그리고 <잘 산다>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 <哲學者처럼>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음직도 하다. 그렇다고 누구나가 철학자가 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누구나가 <철학자처럼> 즉 <愛知하면서>는 살아야 할 것이다. <愛知하면서>라는 것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고 眞實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신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 <철학자처럼>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여기 관하여 소크라테스는 말한다——“참 철학자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기쁜 마음을 가질만한 이유가 있고, 또 죽은 후에는 저 세상에서 최대의 福을 얻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참으로 哲學하는 사람은.....항상 죽음을 추구하고 있고 죽음을 원해 온.....”<sup>㉒</sup> 것이라고. 철학자가 죽음을 추구하는 것은, 그가 일생 동안 찾은 것이 眞理요, 육체는 眞理探求 및 認識에 방해가 되고,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되어 순수하게 되고 眞理認識에 적합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철학자는 먹고 마시는 快樂, 性의 快樂 등 모든 쾌락에 마음을 쏘서는 안된다. 享樂은 <잘 사는> 것이 못된다. 哲學이란 다름아닌 “죽음의 연습”<sup>㉓</sup>이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잘 산다>는

註 ㉑ Phaidon. 63 b~c.

㉒ Ibid. 63e~64a.

㉓ Ibid. 81a 參照.

것의 意味는 <죽음을 받기면서 산다>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態度는 理想的인 것일 따름이라 해야 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잘 산다>는 것의 참된 意味 속에는 죽음과 對決하고 죽음에 대하여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포함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意味를 좀 더 추궁하자. 참된 철학자의 關心은 육체가 아니라, 정신으로 향해야 한다.<sup>24</sup> “철학자란, 다른 누구보다도 될 수 있는 데로 영혼을 육체와의 結合으로부터 解放시키려는 사람이다.”<sup>25</sup> 소크라테스는 육체와 그 여러가지 욕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육체는 우리로 하여금 戀情과 情慾과 恐怖와 온갖 空想과 끝없는 어리석음으로 가득하게 하고, 그리하여……도대체 생각하는 능력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것일세. 그리고 전쟁이나 內亂이나 싸움은 육체와 그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왜냐하면 모든 전쟁은 돈을 얻으려고 생기는 것인데, 우리가 돈을 얻어야 하는 것은 육체가 있기 때문이요, 노예처럼 육체에 봉사해야 하기 때문이야.”<sup>26</sup> 戰爭의 原因이 육체의 욕망에 있고 돈을 획득하려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은 미상불 卓見인지 모른다. 여기 대해서는 과연 모든 전쟁의 原因이 그런 것인지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도 여기서 깊이 들어갈 것이 못된다.

우리는 육체 없이 살 수 없다. 따라서 육체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살 수는 없다. 그러나 육체만을 생각하고 육체의 욕망만을 따라서 산다고 하면, 그리고 이런 사람이 많을 수록 社會는 動物的 野蠻의 상태로 타락함직도 하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의 연습과 관련시켜 幸福을 생각하며 野慾으로부터 解放됨으로써 행복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다. 즉, 철학함으로써 죽음의 연습을 해온 영혼은 “神的이고 不滅하며 叡智의인 세계로 향하여, 거기 이르러 過誤와 愚昧, 恐怖와 野慾 및 이 밖의 온갖 惡에서 解放되어 크나큰 幸福을 얻고, ……영원히 神들과 함께 지내게 되는 것이 아닐까?”<sup>27</sup>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까지 생각해오면 <잘 산다>는 것은 <神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라고까지 말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크리톤』에서 <잘 산다>고 말한 것에서 참으로 먼 길을 걸어온 느낌이 든다. 그러나 거기서의 <잘 사는> 것과 전혀 無關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여간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상, 육체의 욕망을 전적으로 없앨 수는 없으나, 될수록 육체의 욕망을 없애고 혹은 이김으로써 幸福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賢人 소크라테스의 信念이요 敎訓이라 하겠다.

또 소크라테스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 가장 좋은 곳에 가는 사람들은, 節制와 正義라 하는 덕을 실천한 사람들……이 아닐까?”<sup>28</sup>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행복은 節制와 正義의 德의 實踐의 결과라고 할 것이다. 또 <옳게 사는 것>은 節制와 正義의 덕을 실천하면서 사는

註 24 Ibid. 64e.

25 Ibid. 65a.

26 Ibid. 66c~d.

27 Ibid. 81a.

28 Ibid. 82a~b.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 節制 *σωφροσύνη*에 관하여는 소크라테스가 여러 군데서 말하며 또 강조하고 있다. 節制란 “욕망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욕망을 경멸하고 단정한 몸가짐을 가지는 것”<sup>29</sup>이라고 規定하기까지 하고 있다. 또 勇氣, 節制, 正義를 묶어, 참된 德이라고 말하고도 있다.<sup>30</sup> 그리고 참된 德은 또한 淨化 *κάθαρσις*라 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節制와 正義와 勇氣 및 지혜, 즉 참된 德은 모든 情念을 淨化하는 것일세.”<sup>31</sup> 또 哲學이 解放과 淨化를 주는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다.<sup>32</sup>

소크라테스는 또 “참 철학자의 영혼은…… 쾌락과 욕망과 고통과 공포를 멀리한다”<sup>33</sup>라고 말한다. 이것은 佛敎의 解脫의 경지와도 비슷하다. 기쁨이나 슬픔이나 공포나 욕망 등 情念에 사로잡히면 최대의 악에 빠지기 쉽다. 최대의 악이란 “쾌락이나 고통의 감정이 가장 강렬할 때에 어느 누구의 영혼이나 그 강렬한 감정의 對象을 가장 명료하고 가장 참된 것으로 여기는 것”<sup>34</sup>이라고 소크라테스는 설명한다. 이것은 육체의 욕망으로 말미암는 幻想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哲學은 이러한 幻想으로부터의 영혼의 해방이다.<sup>35</sup>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건전하게 하여야 하고,<sup>36</sup> 영혼이 不死하는 것일진대, 영원한 세월에 걸쳐 영혼을 돌보아야 한다.<sup>37</sup> 그리고 “일생 동안 깨끗하게 節度있는 생활을 한 영혼은 神들이 걸동무를 해주며 案内者가 되어주어, 각기 자기에게 어울리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 安住할”<sup>38</sup> 희망이 있다. 이 희망에 대하여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특별히 경건하게 산 사람들은 마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듯 이 地下의 장소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고, 저 위의 淸淨한 곳에 올라가 그 땅 위에서 살게 되는 결세. 이 사람들 가운데 특히 철학으로 자기 자신을 순결하게 한 사람들은 그 후로는 전혀 육체 없이 살 것이며,…… 우리는 이 人生에서 德과 지혜를 얻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일세.…… 이런 까닭에 육체의 쾌락과 장식물이 자기와는 異質的인 것이요, 유익하기보다 오히려 해가 된다고 보고 이것들을 물리치고 오직 배우는 기쁨에 열중해온 사람은 자기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일세. 또 이 사람은 그 영혼을 異質的인 것으로 장식하지 않고 오직 영혼 자신의 장식물, 즉 節制와 正義와 勇氣와 自由와 眞實로써 단장하였기 때문에, 운명이 그를 부르는 대로 곧 하데스로 떠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결세.”<sup>39</sup>

註 29 Ibid. 68c.

30 Ibid. 69b.

31 Ibid. 69c.

32 Ibid. 82d.

33 Ibid. 83b.

34 Ibid. 83c.

35 Ibid. 84a.

36 Ibid. 89e.

37 Ibid. 107c.

38 Ibid. 108c.

39 Ibid. 114b~115a.



이와 같이 『파이돈』에서는 육체와 그 모든 욕망을 물리치고 영혼을 돌보며 節制와 正義 등 德 있는 생활을 할 것이 高調되고 있다. 거기서의 人生의 理想은 佛敎의 nirvana의 경지를 방 불시키기도 한다. 거기서의 <잘 사는> 것은 <죽은 것같이 사는 것> 이라고도 할 수 있음적하 다. 그러나 오늘날 이와 같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있다 하더라도 몇 사람 있는가?

『파이돈』에 나타난 바와 같은 소크라테스의 思想은 스토아學派나 그리스도敎의 禁慾主義思 想 속에 흘러갔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現代의 많은 精神病學者는 現代의 많은 精神的 疾患이 그리스도敎의 禁慾主義的 文化的 소산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에리히 프롬(Erich Fromm) 같 은 이는 결국 超越의 原理를 부인하고 자기 속에 있는 최선의 것을 캐내고 키우는 것을 倫理 의 至上目標로 提示하고 있다.<sup>40</sup> 그리하여 이를테면 건전한 個人主義를 提唱한다. 이것은 精 神病學者(psychiatrist)로서의 그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절실한 주장이요 경청할 만한 것이 있다 하겠다. 그런데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자기>나 <자기 속에 있는 최선>의 것은 영혼과 그 여러가지 德만일 터이다. 프롬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육체와 정신을 포함한 전 체를 자기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마 현대의 일반적 경향일 것이다. 이 런 입장에서 보면 소크라테스의 주장은 實現不可能한 혹은 실현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架 空的인 소리라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生活周邊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소크라테스의 말 속에는 영원한 眞理와 옳은 社會建設에의 깊은 洞察이 깃들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근래 우리 나라 사회에서 심각하게 문 제되는 不正・腐敗와 잇따라 일어나는 可恐할 事件들은 모두 肉體的 慾望을 채우려는 데서 비 쳐지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뿌리깊은 病弊는 소크라테스의 哲學精神의 缺乏 때문이다. 이러한 病弊의 根本的 是正策은 국민 대다수가 <잘 산다>는 것의 意味를 고쳐 생각하는 데 있 을 것만 같다. 이런 意味에서 볼 때 여러가지 努力 중에 人間改造를 부르짖는 것이 문제의 核 心을 건드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人間改造는 말뿐, 實踐이 따르지 않아, 우리의 現實은 여전히 어두운 것이다.

哲學이 高遠한 理論이기만 할 때 그것은 한갓 空論일 따름이다. 오늘날의 哲學에는 소크라 테스의 信念이 곁들여져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그러한 철학이 국민을 지도해야 할 것이다.

## V

『파이돈』이 죽음의 讚歌라면 『쉽포시온』 즉 『饗宴』은 삶의 讚歌라 하겠다. 『쉽포시온』에서 는 삶의 꽃이라 할 사랑의 本質이 追求되고 있으니 말이다. 『쉽포시온』에서 사랑에 관해서 말 한 것 중 가장 깊이있는 것은 물론 소크라테스가 女豫言者 디오티마에게서 들은 것이라 하여

註 40 Erich Fromm, *Man for Himself*, 1947, p. 248.

내어놓은 것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말한 사람들의 에로스讚美 속에도 소크라테스·플라톤의 思想이 더러 豫備的으로 들어 있다고 하겠다. 가령, 파이드로스란 登場人物은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을 찬양하고 사랑의 힘의 偉大性을 논하고 있다. 그리고 “神들도 사랑에 있어서의 獻身과 勇氣를 특별히 소중하게 여긴다”<sup>41</sup> 라고 말하고 있다. 또 파우사니아스는 美의 女神 아프로디테에 두 종류, 즉 우우라니아 *Oûrania* 와 판테에모스 *Πανδημος*가 있고, 이에 對應하여 *Eros*도 둘 있어서 그 하나는 *Πανδημος*요, 다른 하나는 *Oûranios*라 말하고 있다.<sup>42</sup> <우우라니아>나 <우우라노스>는 <하늘의>를 의미하며, <판테에모스>는 <모든 사람들의>, 나아가 <低俗한>을 의미한다. 즉, 사랑에도 두 종류가 있어서, 하나는 고귀한 사랑이요, 다른 하나는 저속한 사랑이다. 저속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少年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女性을 사랑하기도 하며, 상대방의 영혼보다도 육체를 더 사랑하며, 될수록 어리석은 자를 사랑의 對象으로 한다.”<sup>43</sup> 이에 반하여, 하늘에 속하는 사랑을 하는 사람은, “女性과는 상관없고 男性을 사랑하되 強健하고 理性的인 男性을 사랑한다.”<sup>44</sup> 이와 같은 말은 디오티마의 말에서 高調되는 최고 최선의 사랑에 대한 豫備的 發言이라 하겠다.

디오티마와의 對話에서 소크라테스는 먼저 에로스가 神이 아니라, 하나의 *δαίμων*이라는 깨우침을 얻는 것으로 『실편시온』에서 描寫되어 있다. 이것은 사랑에 대해서도 소크라테스가 神話的 思想을 떠나 合理的·哲學的 思想에 나아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런 前提 다음에 哲學的 精神의 所有者가 至高의 아름다움을 찾아 더듬는 사랑의 巡禮의 이야기가 나온다. 어떤 이는 이 사랑의 過程을 플라톤의 辯證法(*dialectique platonicienne*)이라고 부른다.<sup>45</sup> 죽을 수 밖에 없는 存在로서 이 세상에 있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려 하는 동시에 不死를 欲求한다.<sup>46</sup> “可死的인 것의 本性은 항상 그 힘이 미치는 데까지 不死하며 永生하기를 원하는 것”<sup>47</sup>이다. 따라서 人間은 “不死를 사랑한다.”<sup>48</sup> 그런데 不死는 出産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可死者에게 있어 出産은 永生하며 不死하는 어떤 것이다.”<sup>49</sup> 파우사니아스에게 있어 아프로디테와 에로스의 두 종류가 있었듯, 出産이나 不死에도 두 종류 내지 두 形態가 있다. “육체적으로 生殖力이 있는 사람들은 여자에게로 향하여 거기서 愛慾을 불태워 자식을 낳아, 이로써 不死와 追憶과 幸福을 <영세 무궁토록 자기 자신의 것이 되게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

註 41) *Sumposion*, 179d.

42) *Ibid.* 180e.

43) *Ibid.* 181b.

44) *Ibid.* 181c.

45) Denis Huisman, *L'esthétique*, 1959, p. 10.

46) *Sumposion*, 207a.

47) *Ibid.* 207d.

48) *Ibid.* 208e.

49) *Ibid.* 206e.

이요,……정신적으로 생식력이 있는 사람들도 확실히 있는데,……이런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것은 지혜와 온갖 美德이다.…… 그리고 이 지혜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나라와 가정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에 관계하는 것으로써, 우리가 節制와 正義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sup>⑤</sup>

인간은 죽을 수 밖에 없는 存在로서 不死를 渴求한다. 많은 사람은 子息을 낳아 一種의 永生과 不死를 획득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精神的인 永生과 不死의 형태도 있다. 그것은 文化的 創造를 통한 不死라 하겠다. 베에토오벤은 에밀리에란 少女에게 보낸 편지에서 “오직 學問과 藝術만이 인간을 神性에까지 높인다”<sup>⑥</sup>고 말하고 있다. 不死의 希望을 학문과 예술에서 찾은 말, 아니 絕叫라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文化的 創造는 精神的 永生의 길이라 하겠는데, 플라톤은 그중에서도 특히 나라와 국가를 질서있게 하는 일, 節制와 正義를 나라와 가정에서 확립하는 일을 가장 큰 것으로 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考察한 바 政治不信에서 우려나옴직한 政治嫌惡와는 오히려 方向을 달리하여 적극적으로 正義를 實現하는 政治的 知慧를 찬미한 것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 민족의 오랜 念願인 統一도, 물론 外勢의 타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 민족 자체의 節制와 政治的 知慧와 正義의 缺如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正義에 관해서 말하면, 우리 社會에 貧富의 隔差가 있음은 모든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요, 그로 인하여 민족의 階層 간에는 깊은 龜裂이 파지고 國民性의 identity를 상실하게 하고 있다.

하여간 『쉽포시온』에서의 사랑의 이야기가 正義에까지 비약했지만, 이상 검토한 『쉽포시온』의 내용에서도 <잘 사는 것>의 몇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欲求하지 않고서 살 수는 없다. 그중에 특히 不死는 모든 인간의 영혼의 欲求의 對象인 듯싶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사랑하며 정말 不死와 永生은 어떤 것일까? 무엇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잘 사랑하는 것> 일까? 결국 『파이돈』에서와 같이 육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을 사랑하는 것이 귀한 일이다. 진정한 永生의 길도 여기에 있음직하다. 여기 대하여는 懷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육체 이외의 文化的 所産을 통한 不死나 永生은 곁잡대기의 不死내지 永生이요 알맹이 없는 것이요, 이름뿐인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것도 信念의 문제인지 모른다. 그러나 플라톤의 사랑이 社會에 맑은 기운을 불어넣을 것만은 확실한 일이 아닐까 한다.

플라톤은 哲學的 精神的 사랑의 巡禮를 다음과 같이 여러 辯證法的 段階로서 描寫하고 있다——“맨 먼저는 한 육체를 사랑하며 아름다운 로고스를 낳아야 하며……그 다음에는 결국 모든 육체의 아름다움이 비슷함을 깨달아,……한 육체에 대한 강렬한 情慾에서 해방되어

註 ⑤ Ibid. 208e~209b.

⑥ Deutsches Lesebuch, Herausgegeben von Ernst Bender, p. 61.

야 하며,……그 다음에는 영혼의 아름다움이 육체의 아름다움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믿어야 하며,……그 다음에는 모든 知識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아야 한다.……美의 큰 바다로 나아가 그 바다를 바라보는 가운데 풍부한 愛知心에서 많은 아름답고 숭고한 로고스와 思想을 낳아, 마침내 이런 가운데서 힘을 얻고 성장하여 하나의 특별한 지식을 얻어야 한다.……”<sup>52</sup> “아름다운 것들을 옳은 順序로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사랑의 神秘를 향하여 인도되어 온 사람은, 여기서 그 마지막 단계에 접근하고 있다. 갑자기 그는 그 本性이 놀라운 하나의 美를 바라보게 된다. 그것은……美 自體다.”<sup>53</sup> 이상의 여러 단계를 플라톤은 다시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사랑의 오묘한 진리에 나아가는 길은 다음과 같다——즉, 이 세상의 個個의 아름다운 것들로부터 출발하여, 마치 사다리를 올라가듯 하나의 아름다운 육체로부터 두개의 아름다운 육체로, 두개의 아름다운 육체로부터 모든 아름다운 육체로 나아가고, 아름다운 육체들로부터 아름다운 일과 활동으로 나아가고, 여기서 다시 아름다운 學問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아름다움 自體를 아는 완전한 학문에 나아가, 마침내 美의 完成體를 알게 된다.……”<sup>54</sup> 여기서 최고 최선의 存在인 美 自體가 무엇인지는 그다지 분명치 않다. 플라톤은 그것이 神的인 아름다움이라고 말하고 있다.<sup>55</sup> 유이스망은 이 美 自體를 神의 한 모습 (une image de Dieu)이라 해도 지나친 일이 아니요, 神의 像(image Divine)과 정확하게 一致한다고 말하며 해석한다.<sup>56</sup> 이것은 하여간에 참으로 <잘 산다>는 것은 至高至純의 아름다움을 보고 알며 그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될 것 같다. 이것은 과연 하나의 높은 理想이라 할 것이다.

『쉽포시온』의 末尾에 알키비아데스가 亂入하여 소크라테스의 행적을 말하는 중 同性愛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sup>57</sup> 同性愛의 肉體關係는, 이 이야기로 미루어, 그 당시 하나의 社會的 慣習이었던 것 같다.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를 유혹하고 자기의 육체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자신을 가지고 함께 잠자리에 들어갔으나,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버지나 형과 함께 잔 때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sup>58</sup>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사실이었다고 생각되지 나와), 소크라테스는 과연 克己心이 강하고 節制의 美德을 갖추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플라톤이 말하는 바와 같은 美 自體를 평생 바라보고 사랑하고 탐구했는지도 모른다. 凡備한 사람이 소크라테스만한 경지에 이르는 어렵겠지만, 하여간 어느 정도 절제할 줄 알고 最高 最善의 美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마 가장 잘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음직 하다.

註 52 *Sumposion*, 210a~d.

53 *Ibid.* 210e.

54 *Ibid.* 211c.

55 *Ibid.* 211e.

56 Denis Huisman, *L'esthétique*, 1959, p. 14.

57 *Sumposion*, 219b~a.

58 *Ibid.* 219d.

VI

소위『소크라테스의 네 福音書』라 하는 對話篇을 통하여 <잘 산다>는 것의 意味를 정리하면서, 거기 비추어 우리의 現實을 반성해 보았다.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있을 줄 안다. 그러나 그 문제 자체는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일반으로 거의 모든 사람은 <잘 산다>는 것을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사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 자체도 이런 생각에서 모든 政策을 꾸려나가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잘 산다>는 것은 <옳게 사는 것>이요, <옳게 산다>는 것의 內包는 위에 말한 바와 같이 매우 深遠한 바 있다. 요컨대, 그것은 육체의 욕망에 지배되어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신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다. 정신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出產하는 것이 참으로 보람있는 삶이요, 참으로 <잘 사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국가의 목표도 經濟發展을 爲主로 하는 데서 文化國家建設으로 전환되어야 할 줄 안다. 학문과 예술이 아름답게 꽃피는 나라가 참으로 바람직한 나라다. 물론 여기에는 經濟開發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政治나 經濟는 手段이지 目的이 아니다.

사실은 政治와 經濟가 目的인 양 錯覺되고 또 社會에서 인정되고 있는 데에 오늘날 우리 社會의 크나한 不幸인 不正・腐敗의 원인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目的과 手段의 관계를 바로 인식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또 철학자들은 이러한 인식이 국민 전체의 것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위에 말한 바와 같이,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입을 통하여 모든 지혜 중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나라와 집안을 잘 다스리고 질서 있게 하는 것이요, 그것은 다름아닌 節制와 正義라고 말하고 있다. 한 나라 안에서 모든 국민이 節制의 美德을 발휘해야 그 국민들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다. 지나친 욕망이 亂舞하는 곳에 국민 전체의 행복이 있을 수 없다. 몇 사람이 물질적으로 <잘 살> 때, 그리고 국민들이 돼지우리 같은 데서 살 때, 그 소수의 사람은 참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不安이 있다. 현재 우리들 모든 국민의 마음 속에는 불안이 있다——소위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대로,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대로. 이런 상태를 不信이라고 말할 하여 오기도 했다. 이런 까닭에 우리에게서 하나의 위대한 정치적 지혜를 얻어 祖國을 통일도 하려니와 또한 社會正義를 具現해야 한다. 社會正義 없이 統一은 不可能하다. 참으로 正義가 아쉽다. 筆者는 수년전에 플라톤의 정신을 따라, “正義란 社會의 모든 成員이 자기에게 어울리는 자리에 있으면서, 만족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狀態다”(Justice is a social state in which every member, occupying

註 ㉞ Some Philosophical Reflections on Modernization, in the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Problems of Modernization in Asia*, 1965, Published by Asiatic Research Center, Korea University, p. 45.

the position such as he or she is supposed to be at and he or she is fit for, works with feeling of satisfaction)라고 正義를 定義해 보고, 또 正義란 일종의 調和요 近代化의 主要原理의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㉔ 卑近한 例로, 얼마 전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소위 豪華住宅에 사는 사람은 정말 <잘 산> 것인지 그리고 지금도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볼 일이다. 소크라테스의 意味에서 그것은 <옳게 사는> 것이 아니요, 따라서 <잘 사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결국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는 누구나 잘 살아야 정말 모든 국민이 잘 사는 것이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意味에서 <잘 사는> 것이 물질적으로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라면, 우리는 훌륭한 文化的 創造를 이룩하고 正義를 하루 속히 이 땅에 實現하여야 우리 모두가 정말 <잘 사는> 것이 되겠다고 생각된다.